

“봄철 신록 가득한 전남 숲길서 힐링하세요”

도, 담양·구례·화순·장성 추천 드라이브·산책·사진명소 각광 체험·치유 프로그램 등 다채 주변 미술관·카페 등도 인기

전라남도가 자연의 싱그러움과 치유의 시간을 만끽할 걷기 좋은 숲길 4곳을 5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담양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은 1972년 조성돼 50년이 지난 지금 8.5km 길이의 도로 양쪽에 높

이가 20m에 이르는 아름드리나무 2000여 그루로 초록빛 동굴을 만든다. 5월에는 신록이 절정을 이뤄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드라이브 코스로뿐만 아니라 도보 여행자에게도 사진 촬영 명소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변에는 작은 미술관과 카페, 자전거 대여소 등이 있다.

구례수목원은 전남도 제1호 공립수목원으로 다양한 봄꽃과 수목이 어우러진 진달래원, 봄향기원, 그늘정원 등 13개 정

원과 온실, 종자학습관으로 조성됐다.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과 나무로 조성된 주제별 산책로를 걸으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속 자연물을 활용한 개구리알 관찰하기, 나뭇잎 배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어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화순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은 40년생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는 곳으로 넓은 대지에서 뿜어내는 싱그러운 피톤치드를 마시며 일상의 피로를

날려보낼 수 있다.

통나무집, 썰매장, 물놀이터 등 가족 모임과 학교, 회사 등 각종 단체의 연수, 세미나, 수련회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숙박 예약은 산림청 통합예약사이트 ‘숲나들e’에서 가능하다.

장성 치유의 숲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죽령산에 독립운동가 임종국 선생이 20여 년간 가꾸 숲을 완성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조림지로 손꼽힌다.

산책로 ‘치유의 숲길’은 경사가 완만해 쉽게 숲을 둘러볼 수 있으며 숲내음 숲길,

산소 숲길, 건강 숲길 등 테마별 숲길이 6개 코스로 조성됐다. 또한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장성숲체원에서 편백 팔찌만들기, 노르딕워킹, 숲속 요가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숲길은 울창한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걷기만 해도 눈과 마음이 힐링된다”며 “전남의 걷기 좋은 숲길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5월의 신록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시 “폐건전지, 새건전지로 교환해 드려요”

12~23일 시·구·행정복지센터 10개당 새건전지 2개로 교환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12~23일까지 ‘상반기 폐건전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거기간은 물품 교환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금속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시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시민이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해준다. 교환장소는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5개 자치구 청소행정과,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다.

폐건전지는 수은·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분리배출하면 유용한 금속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보호 효과가 크다.

광주광역시시는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위해 자치구에 해마다 교환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52톤의 폐건전지를 수거했다. 이는 2023년 수거량 131톤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반영된 결과다. 정상이 기자

전남산림연구원, 남도장터에 자체 개발 상품 출시

황칠 향수 등 연구성과물 공동 홍보마케팅 등 협약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은 8일 재단법인 남도장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 개발한 황칠향수, 생달디퓨저 등 우수 연구성과물을 제품으로 직접 출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산림연구원과 남도장터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해 산림바이오산업 발전과 도민 산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남도민의 건강 및 생활 향상을 위한 산림서비스 및 개발 제품 공동 홍보·마케팅 △산림연구원 개발 제품의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처 입점 △전남도 빗가람 치유의 숲 온라인 홍보 및 연계사업 운영 △산림연구원 산림치유 건강프로그램 남도장터 50% 할인 공급

등이다.

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난대 산림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전남도산림연구원의 산림 바이오 제품과 산림치유서비스가 유통 플랫폼과 연계돼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제공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약에 따라 전남도산림연구원에서도 개발해 특허출원한 황칠 향수 ‘골든 포레스트(Golden Forest)’가 남도장터를 통해 자체브랜드(PB) 제품으로 대중에게 처음 소개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전남도산림연구원에서 황칠 원액을 활용해 개발한 황칠향수 제품은 수면에 좋은 캐리오픈렌 등 심신안정에 좋은 유용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접수

용자 자금·판로 지원·교육 혜택

전라남도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통해 2025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을 받는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는 1차(농산물 생산)산업 외에 2차(농산물 가공), 3차(체험·교육)산업을 융·복합해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인증사업자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인증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4600만 원 이상, 국산 원료를 주원료(도내 생산량 50% 이상)로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용자) 지원,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사업 참여 우대 자격과 △농업인 교육 △현장코칭 △판로지원 등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분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산 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을 갖춰 오는 1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www.전남6차산업.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8일 남구 빗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20곳 선정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불고 있는 ‘책 읽기 열풍’을 이어가고자 ‘2025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역서점 20여곳을 선정, 인문프로그램·독서모임 등 지역서점 특장점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는 ‘인문프로그램 기획 서점’과 ‘독서모임 운영 서점’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서점의 기획 역량과 운영 방식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인문프로그램 기획 서점’은 서점의 특장점을 살려 책을 중심으로 한 인문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횟수는 3회차 이상으로 강연, 북토크, 영화·음악과 같은 타 장르와 협업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 가능하다.

선정된 서점은 신청 내용과 진행 횟수 등에 따라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독서모임 운영 서점’은 서점 대표가 직접 5회차 이상의 독서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역 작가 등 독서 모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지원금은 서점당 150만원이다.

사업 참여 서점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

한 홍보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cf_art@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유산지원과(062-613-2492)나 광주문화재단 시민생활문화팀(062-670-74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순희 문화유산지원과장은 “지역서점이 시민소통의 공간이자 지역문화를 공유하는 생활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서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시,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교육’ 첫 시행

전문훈련사 1대1 맞춤형 교육

광주광역시가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문훈련사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올해 처음으로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의 과도한 짖음, 분리불안, 공격성 등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문제행동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은 광주 5개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각각 추진하며, 시민 편의를 고려해 집합교육 또는 1대1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전문훈련사가 직접 참여해 반려인의 올바른 양육법, 반려동물 사회화 방법, 문제행동 교정 등을 지도한다. 1대1 교육은 반려동물의 성격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훈련으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반려동물 문제행동으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